

몬트레이 한인 천주교회

303 Hillcrest Ave. Marina, CA93933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2023 년 1 월 1 일 (가해) 1 호



- ◆ 주임신부 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831) 220-1209
- ◆ 사목회장 정영순 크리스티나 (831) 737-0081
- ◆ 미사: 주일 미사 오후 4 시, 목요 미사 오후 6 시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 분 전
- ◆ 성체 강복: 매달 첫째 목요 미사 후 ◆ 봉성체: 매달 셋째주 금요일
- ◆ 레지오 모임: 그리스도의 모후 목요일 4 시 20 분, 바다의 별 목요일 4 시반
- ◆ 성령기도회: 목요 미사 후



2022. 12. 25 성경 통독 축복장 수여식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민수 6,22-27

화답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은 자 - 비 - 를 베푸 시 고 저 희 에 게
복 - 을 내 리 소 - 서

제 2 독서 갈라 4,4-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 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16-21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입당 241	봉헌 340	성체 187	파견 249
--------	--------	--------	--------

† 전례 봉사

복 사	강석우 안드레아, 이수지 데레사
독 서	양승룡 유스티노 (1), 이지연 카타리나 (2)
해 설	오윤정 이사벨라
봉 헌	신동현 에드몬드, 이지연 카타리나

미사 참례자수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12/24) 51 명,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2/25) 50 명

우리의 정성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12/24)

구유경배 예물: \$575

봉헌: \$324

감사 헌금: 김인혜 \$200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2/25)

주일 헌금: \$338

감사 헌금: 문종화 \$200, 양화자 \$50, 윤형봉 \$100, 전젼마 \$100

교무금: 양화자 (1), 정영숙 (11, 12), 익명 (1)

사제관 건립 기금: 양화자 \$20, 총액 \$89,284.32

기도해 주세요



김재희 헬렌, 송정옥 프란치스카, 알리샤 라우시, 양화자 소화 데레사
전경순 젼마, 정영숙 레지나

알려드립니다

-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다시 한 해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 신자분들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 새해를 맞이하여 주일 미사 후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지난 12 월 22 일 몬트레이 한인회(회장 오영수)에서 팔죽을 준비해주셔서 30 여분의 신자분께 전달했습니다. 한인회의 정성과 나눔에 감사드리며, 수고해주신 조은주 아가다, 이은미 리디아, 이수지 데레사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1 월 5 일(목) 목요 미사 후에 성체강복이 있겠습니다.
- 1 월 22 일(일) 설 미사가 있습니다.
위령미사 봉헌(지방문 신청)은 전례위원장(오윤정 이사벨라)에게 신청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묵상 나눔

“나도 누군가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성탄을 축하한다고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탄생하셨음을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곧 나도 이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구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꿈꿔봅니다. 나로 인해 그 사람이 웃을 수 있고, 나로 인해 그 사람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나로 인해 그 사람이 다시 살 맛이 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복음을 스마트폰으로 읽는 데는 인색한 우리들입니다. 복음을 읽고 단 3분만이라도 침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